

## 미국 도심형산업 입지 지원정책 조사

### -이원빈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1) 출장자 : 이원빈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2) 출장기간 : 2010년 11월 7일 (일) ~ 11월 14일 (일) (7박 8일)

(3) 출장 조사지역 : 미국 산호세, 버클리, 시애틀

#### (4) 출장 조사내용

□ 11월 8일 (월) 중소기업지원센터(캘리포니아지부)방문, 면담자 Katie Quan

○ 중소기업지원 육성프로그램 이머징200(Emerging 200) 사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

○ 동 사업의 추진배경은 미국내 도심지역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음.

- 대도시의 도심 내 소상공인들의 현황에 따르면, 대도시도심(inner city) 내 약 81만명의 자영업자(약 총 취업자의 8%)들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1% 미만의 성장을 기록

- 도심 거주자들의 약 22%정도가 위와 같은 도심내 저성장(성장률 1% 미만) 소상공업에 종사
- 이러한 대도시도심 내 종업원 20명 미만의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약 75,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음.
- 따라서 저소득층 밀집된 낙후지역(under-served market)에 지역 내 창업 장려 필요성 대두
- 주요사업으로는 캘리포니아 지역내 도시 빈민지역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인지와 기술지원 외
  - 지역내 도시 빈민지역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도시 빈민지역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계약 용이한 체결 지원
  - 저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 도심 가난층 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53개의 대도시가 지원 자격이 있었으며 이 중 23개 도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 첫해인 2008년 보스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애틀랜타, 시카고, 밀워키, 앨버커키, 뉴올린스, 드모인 및 오클랜드 모두 11개 도시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
- 11월 9일 (화) UC Berkeley, 도시지역개발센터 방문, 면담자 : John Chuang
-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인근의 Route 128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성장, 차이점 등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역내 유관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
-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면, 관련 산업과 기업의 네트워크이므로 이를 꼭 공간적 지역적 차원의 네트워크로 한정해서 쓸 필요는 없지만, 이를 지역적 차원으로 한정한다고 할 때, 그 통상적 문제의식은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이 왜 잘 되거나 잘 안되거나 하는 것임.

-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를 추가한다면 그것은 특정 유형의 기업들을 수 있는데 왜 특정 지역에는 특정 유형의 기업은 잘되는 반면, 다른 유형이 기업은 안되는가에 대해, 왜 특정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는 반면 특정 산업은 대기업 위주인가를 우선 분석해야함.
- 이러한 기술체제와 기업선별의 관점에서 해당 지역 내의 기업들이 특성을 파악하여 이 특성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 잘 맞아 떨어지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함.
  - 실리콘밸리지역은 지역의 이러한 기업적 특성에 의해 연구소, 대학등에서 스핀오프된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긴밀한 인적, 공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발전한 대표적인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산업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어떤 산업이 많거나 유망하다고 보일 경우, 그 산업에 맞는 기업 유형에 대한 명시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함.
- 더불어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기업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즉, 특정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여 한 기업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원이면서도 그 지역에만 존재하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런 자원이 많이 있을수록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비교 우위가 있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경제 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정부의 조정과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 11월 9일 (화) 샌프란시스코 영상산업 복합단지 방문

-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성공과 성장에 따른 기업집적의 과밀화 및 인근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지가 상승, 입지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심내 노후지역 재개발 및 낙후도시 재생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음.
- LA의 영화산업 관련 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부지와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첨단영상기술 확보 등을 위해 북부 캘리포니아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 허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결합된 형태의 도시형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음.
- 금문교 인근 해군기지가 있던 지역이 해군기지 이전 이후 슬럼화 되고 폐허화되자 구 해군기지를 주변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통해 영화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영상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였음.
- 동 복합단지에는 루카스 필름을 비롯한 3개의 메이저 영화사와 20여개의 관련 기업 및 기획사 등이 집적하여 미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11월 10일 (수) SCORE 산호세 지부 방문, 면담자 Michelle McGurk

- SCORE 제도는 기업경영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퇴직 경영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를 창업자 및 사업자들에게 전수해 주는 미국의 은퇴경영자서비스단(SCORE)을 벤치마킹한 SCORES(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 Scholar)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
  - 산업체 은퇴경영자, 원로학자, 은퇴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필요한 기술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연결매개체(broker)로 활용하고 있음.

□ 11월 11일(목) 캘리포니아 중소기업청 투자지원센터(CBIS) 방문

- 낙후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HUB Zone 프로그램을 시행
- 동 사업은 저개발된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연방정부 조달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해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낙후지역 개발 시책임.
  - HUB Zone은 미국 노동부의 최근 통계에 근거한 가계 중앙소득이 주(州) 가계 중앙소득의 80% 미만이거나, 실업률이 주(州) 평균의 140%를 상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1997년 도심 빈민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제정한 '중소기업청재인증법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eauthorization Act)'에 근거하여 HUB Zone Program이 시작
- 재인증법은 당초 20%였던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조달 비율 목표를 23%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계약 목표를 2001년 2%, 2002년 2.5% 및 이후 매년 3%로 의무화 하였음.
- 중소기업이 HUB Zone 시책에 따라 정부조달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 사무소가 HUB Zone에 위치하고, 미국인 1인 이상이 기업을 소유·운영 하며, 전일제 종업원 35% 이상이 HUB Zone에 거주해야 함.
- 지원내용으로는 정부조달 사업의 불하를 위해 배정계약제(set-aside), 단독 입찰제(sole source), 가격선호제를 활용하여 Hub Zone 기업에게 우선적인 정부조달 사업을 배정
  - 2000~2007 회계연도 동안 건수(86%)와 금액(70%) 측면 모두에서 배정계약제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 온 반면, 단독입찰제(각각 8%, 4%)와 가격선호제(6%, 26%)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음.

- 중소기업청(SBA)의 역할은 HUB Zone Program을 관장 및 감독하며, 수혜 기업들에 대한 적격여부심사 및 관리
-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은 2007년부터 대도시도심 내 저소득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Emerging Leaders Initiative를 시작
  - 도시 빈민가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장려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
  -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기업경영지원서비스에서 투자자 및 투자자본과의 연계, 유경험자로부터의 네트워크 협조 등
  - 도심에 저소득층이 밀집한 대도시들 또한 중소기업청과 연계 협력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훈련시설 제공 및 현지 물류창고 제공 등으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지정하고, 금융 워크숍을 개최하며, 은행 및 사모펀드 업계와의 관계도 구축
- 대도시도심 내 200개의 자영업자를 선별하여 경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해당 기업들에게 성장 가속화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는 '지역 전략(local strategy)'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심층적인 교육
  - 기업이 성장의 다음 단계로 진입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부를 창출하며, 시정부에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세원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중소기업청(SBA)의 'Emerging Leaders Initiative' 2011년 예산 규모는 1,400만불 (약 168억원)
-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비효율적 일자리 만들기와 임금보조의 악순환이 아닌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human capital upgrade 성격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도심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

□ 11월 12일 Seattle Planning Commission 방문

- 시애틀은 도심 북쪽 Lake Union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산업단지 재생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South Lake Union 지역은 시애틀에서 초창기 조성된 산업단지 중의 하나로서 도심화의 진행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였음.

- 시애틀시는 동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로서의 도약을 도모하였음

- South Lake Union지역에는 워싱턴 주립대 의학대학이 입지하고 있고 암연구센터, 시애틀 의학연구센터 등이 집적되어 있어 첨단 생명과학 연구의 허브로 발전

- 2007년 이후 지역내 도시개발 전문기업인 Valcon사에게 SLU지역의 재개발사업권을 부여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 주정부에서는 동쪽과 서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북쪽으로는 Lake Union과 접하여 있어 교통면에서 고립되어 있는 동 지역의 교통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전철 구간을 새롭게 건설함.

- 더불어 SLU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이로 인해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기업이나 연구소의 입주가 활발해짐.

- SLU지역은 크게 5개의 District로 구분하여 과학연구단지 개발을 진행

- 8th Avenue District는 인근의 Denny park를 재정비하고 상업시설들을 유치하여 상업유통지역으로 조성
  - westlake / Terry District 지역은 워싱턴 주립대를 비롯한 많은 생명의 학관련 연구소들이 입지하고 있어 SLU 과학단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시설지역으로 개발
  - Lakefront District는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
  - Cascade District는 주택들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
  - Gateway District는 주거, 오피스빌딩, 호텔 등이 혼재된 복합형 도심산업단지로 조성하여 향후 시애틀의 중심도시지역으로 육성할 계획
- 동 과학단지 조성 및 도심재개발사업은 민간 개발업체(Vulcan)의 참여를 통해 주도적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만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성공한 사례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

(5) 출장일정

일자	방문기관	면담자
11. 7 (일)	· 오후 인천 → 샌프란시스코 이동	
11. 8 (월)	<오후> Small Business Commission, California 국제협력원 방문	Benjamin Corrales (Planner) 면담
11. 9 (화)	<오전> Department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UC, Berkeley 방문 <오후> ILM, 루카스 필름 등 샌프란시스코 미디어복합단지 방문	Prof. AnnaLee Sexenian 면담 미정
11. 10 (수)	<오전> San Jose 이동 <오후> San Jose 시청 Planning & Building Permit 부서 방문 및 Industrial Park 견학	Patrick McGuire 면담
11. 11 (목)	<오전> Sacramento 이동 <오후> 캘리포니아 투자지원센터(CBIS) 방문	Tom Lease 면담
11. 12(금)	<오전> 시애틀로 이동 <오후> Seattle planning commission	Chris Fiori 면담
11. 13(토)	<오전> South Lake Union 과학단지 견학 <오후> 자료 정리	
11. 14(일)	시애틀 → 인천	